

취업직종별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이 형 열*

김포대학 사회복지과 전임강사

《요 약》

본 연구는 취업직종별 장애인 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장애관련 변수, 직업훈련관련 변수, 직업만족관련 변수가 직업유지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2005년도 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 원본 자료(raw data)를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56,56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빈도와 백분율, 다중공선성 여부에 대해서는 VIF(Varance Infaltion Factor)와 Tolerance 방식에 의해서, Pearson 상관관계(correlation) 및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nter Method)을 통해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관련 요인, 직업훈련관련 요인, 직업만족관련 요인 등 많은 요인들이 취업직종별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각 요인들은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입증되었다.

특히, 연구결과 중에서 타 선행연구와 다르게 나타난 특이한 결과로는 첫째, 사무직의 경우 직무수행 특성상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순노무직과 장치·기계제작·조립직의 육체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는 직종과 다르게 나타난 결과이다. 둘째, 전문직의 경우 타 직종과는 다르게 성별이 여성일수록, 그리고 장애유형이 시각·청각·언어와 내부장애·기타장애가 직업유지기간이 길게 나타난 것은 특이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정책과 서비스 개발방향이 취업직종에 따라 특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취업직종, 장애인, 근로자, 직업유지기간, 직업재활

1. 서론

직업은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생계유지 수단이나 생활의 방편뿐만 아니라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수행의 장(場)이자 자아실현의 수단이며, 성취감과 행복감, 삶의 보람 및 긍지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서

* 교신저자(leehy@kimpo.ac.kr)

직업은 동기, 자기확신, 대인관계에 큰 변화를 이끌고, 실제적인 성취경험을 통해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Bell, 1996).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직업은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생계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비교적 직업선택의 폭이 좁고 직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는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형열, 2007).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근로자로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 간다는 것은 개개인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생산적 복지와 개개인이 속한 지역사회 내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는 직업의 선택만큼이나 직업유지는 더욱 어려운 과제이다. 특히, Strauss et al(1998)은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으로 생산적인 일을 할 때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과 시간 및 공간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고, 타인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는 등 직업을 통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라고 직업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장애인은 직업생활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고, 직장생활의 부적응이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아(1994)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의 기회도 상대적으로 적지만 취업 이후에도 새로운 직업환경과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직업유지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지체장애인의 이직경험에 대하여 유명현(1994)은 조사대상인 지체장애인 가운데 이직경험이 한번도 없는 경우는 30.9%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의 이직경험은 2회 이상으로 비장애인의 이직경험 0.8회에 비해 많았다. 이러한 이직원인으로는 직장생활에 대한 부적응이 가장 많았다.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¹⁾에서도 취업후 2년 이내 퇴직하는 장애인이 28.5%로 장애인근로자의 이직현상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6).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48,297,184명(2006.12.31.현재)이며, 이중 등록장애인 수는 총 2,010,560명(2007.3.31.현재)으로서 전체 인구대비 5.0%를 차지하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0%를 장애인 출현율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유럽의 선진국인 스웨덴,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사회적 장애인 각종 중독증과 외국 이민으로 인한 언어상의 장애(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자 등도 모두 장애인으로 간주할 정도로 장애인의 범위가 넓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유형 인정범주가 적고, 사회적 편견 등으로 등록 기피, 복지혜택 미흡 등으로 실제 장애인구에 비해 적은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우리나라에 잠재하고 있는 엄청난 수의 장애인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는 고용측면의 서비스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실천적, 정책적 측면에서 장애인의 직업유지 관련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2000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에서는 2년 이내 퇴직하는 장애인이 35.5%로서 2005년에 비해 7.0%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 삶의 절반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렇듯 다양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장애인의 취업 및 직업유지를 위한 해결방안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직업재활이 매우 중요한데 반해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직업유지 요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며, 장애인의 직업유지 및 안정된 고용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로서 판단된다.

직업유지란 지역사회에서 일정기간 일을 하면서 그 사회에 통합되어 적응하는 능력으로 직업재활의 성과로 측정하는 것 중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Katz et al., 1983). 한국장애인재활협회(1999)에서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이나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 등과 같은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 결과로 인해 성공적인 취업이 이루어져 일정기간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직업유지라 정의하였다. 장혜경(1996)은 직업재활의 최종적인 목표로 직장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였고, 여러 가지 원조를 통해 만족스런 직장 적응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성공적인 직업유지기간을 취업후 30일에서 2년까지로 다양하게 정의한 국내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최희수, 1999; 이금진, 2000; 심정순, 2001; 박주영·이상욱, 2003; 손국진, 2004; 이채식, 2004; 이형열, 2007).

이렇듯 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있어서 직업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떤 요인들을 강화하고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성공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전달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직업재활에 실패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모색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준다(Rubin & Roessler, 2001).

이러한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성, 연령, 교육상태, 결혼상태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Weiner, 1964; Buell & Anthony, 1973; Barrett et al., 1975; Berkowitz et al., 1975; Lorenz, 1981; Dean & Dolan, 1984), 개인자존감, 동기, 독립생활기술, 스트레스 대처능력, 작업태도, 자아상 등 심리적 요인(Strauss, 1977; Wehman & McLaughlin, 1980; Stautter, 1986; Jacobs, 1998; Anthony et al., 1986), 대인관계능력(Schulthesis & Bond, 1933), 사회적지지(Freeman & Simmon, 1963), 가족지지(Vandergoot, 1987), 직업재활프로그램(Jacobs, 1998), 낙인의식 및 직업재활서비스 만족도(오수정, 1999) 등 사회적 요인, 그리고 작업조건, 고용주 및 동료와의 관계, 직업재활기관의 지지 여부 등 환경적 요인(주소현, 1999) 등으로 나타났다.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다양한 변수들이 모두 분석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2005년도 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2006)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모두 분석에 활용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자료가 수집되어 분석이 가능한 변수를 중심으로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2005년 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의 근무직종별 장애인근로자 83,854명을 「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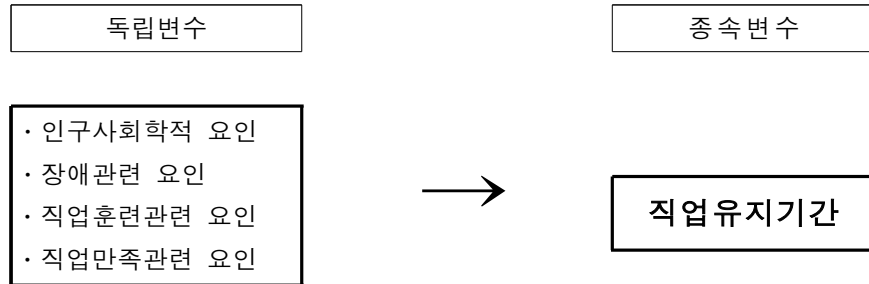
직업분류표」에 의거 대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단순노무종사자가 23,346명(27.8%), ②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20,076명(23.9%), ③사무종사자가 11,102명(13.2%), ④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가 8,193명(9.8%), ⑤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가 7,601명(9.1%), ⑥기술공 및 준전문가가 5,545명(6.6%), ⑦전문가가 5,545명(6.6%), ⑧서비스종사자가 1,608명(1.9%), ⑨판매종사자가 507명(0.6%), ⑩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가 203명(0.2%)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6: 124-125). 즉, 장애인근로자의 직무가 ①단순노무종사자, ②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43,422명으로 전체 5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특별한 기술 없이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취업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작업환경 및 임금 등의 열악함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근로자의 취업직종 중 가장 상호 대조성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단순노무직, 장치·기계제작·조립직, 사무직, 전문직의 4개 직종을 선정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위에서와 같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취업 직종별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유지기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관련 요인, 직업훈련관련 요인, 직업만족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직업유지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 강화를 위한 직업재활적 측면 및 예비 사회인을 교육하고 있는 특수교육 측면에서의 개입방안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분석모형 및 연구문제

선행연구 검토결과 취업직종별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직업훈련관련 요인과 직업만족관련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장애인 근로자가 직업을 유지하는데 개인적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장애관련 특성)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독립변수에 포함시켰다. <그림 1>은 직업유지기간을 종속 변수로 구성한 연구분석모형이다.



<그림 1> 연구분석모형

또한 본 연구는 연구분석모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단순노무직종 장애인 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관련 요인, 직업훈련 관련 요인, 직업만족관련 요인은 직업유지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장치·기계제작·조립직종 장애 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관련 요인, 직업훈련관련 요인, 직업만족관련 요인은 직업유지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사무직종 장애인 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관련 요인, 직업훈련관련 요인, 직업만족관련 요인은 직업유지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전문직종 장애인 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관련 요인, 직업훈련관련 요인, 직업만족관련 요인은 직업유지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사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에서 실시한 2005년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활용하였다. 2005년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는 전국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및 사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수를 추정하고 장애인의 취업직종, 근로형태, 근속기간, 임금수준 등 고용현황을 조사하여 장애인의 고용구조, 작업환경, 근로여건 등을 파악함으로써 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사이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6).

실태조사는 1차(2005.7~9)와 2차(2005.10~12)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1차 조사대상은 전국의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39,985개를 대상으로 하였고, 2차 조사대상은 1차 조사를 통해 장애인고용이 확인된 사업체 중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체 4,281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단, 자영업주, 임금 지급일수가 월평균 15일 미만인 근로자, 국공립교육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방법으로서 1차 조사는 표본 사업체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

용한 전화, 이메일 및 팩스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 조사는 조사원이 사업체의 인사담당자와 해당사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을 직접 방문하여 개별면접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조사과정에서 청각장애인²⁾,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해당 보조인을 활용하여 면접원 직접기입 방식을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직업유지기간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결과 수집되어 분석에 사용된 84,854부 중 취업 중이긴 하지만, 직업유지기간에 설문 응답(체크)이 되어 있지 않은 288부와 본 연구의 직종과 관련이 없는 28,000부를 제외하고, 56,566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국의 장애인 근로자를 전수조사한 연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기간 관련하여 조사대상은 대표성이 있다.

3. 변수의 조작화

본 연구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직업유지기간을 사용하였다. 직업유지기간은 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조작화 하였으며, 개월 수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개월 수는 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이며, 이전 직장의 제외되어 있으며, 회귀분석에서 근속기간 개월 수는 정규분포를 하지 않기 때문에 Log로 변환하였다.

한편, 직업유지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된 독립변수들은 크게 인구사회학적 변수, 장애관련 변수, 직업훈련관련 변수³⁾, 직업만족관련 변수의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표 1>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화를 제시한 것이다.

<표 1>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화

구 분		내 용
인구 사회 학적 변수	성 별	1=남자, 0=여자
	연 령	실제 연령
	학 령	1=무학, 2=초졸, 3=중졸, 4=고졸, 5=대졸 이상
	결혼여부	1=기혼, 0=미혼
	가구소득	가구소득에 자연 Log 취한 값 사용

- 2) 청각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수화통역사와 농통역사를 2인 1조로 활용하였다. 특히, 조사대상 중 수화를 모르는 청각장애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거의 판토마임에 가까운 제스처를 활용한 통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청각장애인 입장에서 통역을 할 수 있는 농통역사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조사의 질을 높였다.
- 3) 직업훈련기간은 개월 수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더미변수를 사용해야 하나 전반적인 흐름만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연속변수처럼 활용하였다.

구 분		내 용
장애 관련 변수	장애 유형	1.지체·뇌병변 : Reference Variable 2.시각·청각·언어 : 1=있음, 0=없음 3.정신지체·발달 : 1=있음, 0=없음 4.정신장애 : 1=있음, 0=없음 5.내부장애·기타 : 1=있음, 0=없음
	장애등급	1=1급, 2=2급, 3=3급, 4=4급, 5=5급, 6=6급
	장애원인	1=선천적,출생시, 0=교통사고,산업재해,각종질환
직업 훈련 관련 변수	직업훈련기간	1=3개월 미만, 2=3~6개월 미만, 3=6~1년 미만, 4=1~2년 미만, 5=2년 이상
	현재 업무와의 일치도	1=매우 낮음, 2=낮음, 3=보통, 4=높음, 5=매우 높음
직업 만족 관련 변수	1.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2.업무배치 3.장애인고용환경 (작업시설·장비,편의시설,보조 기기 등) 4.건강서비스제공 5.임금수준 6.상사·동료와의 대인관계 7.승진 8.근무시간 9.출퇴근 10.장애인고용관리 (직업생활상담원, 수화통역사, 작업지도·보조원 등)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 매우 만족
종속 변수	직업유지기간	취업자 중 근속기간에 자연 Log 취한 값 사용

4. 자료처리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작업(coding)과 오류검토 작업을 실시한 후 SPSS WIN 13.0 Package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될 구체적인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장애 관련 특성, 취업직종별 장애유형 분포, 직업유지기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둘째, 사용된 변수 사이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에 대해서는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와 Tolerance 방식에 의해서 검토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장애 관련 특성, 직업훈련 관련 요인, 취업 관련 요인(직업만족도)이 직업유지기간과 얼마나 밀접한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근무직종별 취업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관련 요인, 직업훈련관련 요인, 직업만족관련 요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nter Method)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전체 조사대상자는 단순노무직, 장치·기계제작 및 조립직, 사무직, 전문직의 4개 직종에 종사하는 56,566명으로서 개인적 특성(인구사회학적, 장애관련)은 <표 2>와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남성이 46,711명(82.6%), 여성이 9,855명(17.4%)의 성별 분포를 보였으며, 40~49세 미만이 17,498명(30.9%), 30~39세 미만이 14,880명(26.3%), 50세 이상이 13,943명(24.6%), 30세 미만이 10,214명(18.1%), 무응답이 31명(0.1%)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졸이 28,366명(50.1%), 중졸이 9,656명(17.1%), 무응답이 5,596명(9.9%), 초졸이 5,356명(9.5%), 대졸 이상이 4,558명(8.1%), 무학이 1,167명(2.1%)의 순이었으며, 결혼상태는 기혼이 40,041명(70.8%), 미혼이 16,486명(29.1%), 무응답이 39명(0.1%)으로 나타났다.

장애관련 특성으로 장애유형의 경우, 지체·뇌병변장애가 38,710명(68.4%), 시각·청각·언어장애가 11,039명(19.8%), 정신지체·발달장애가 4,861명(8.6%), 정신장애가 802명(1.4%)의 순이었다. 장애등급은 6급이 12,973명(22.9%), 3급이 12,468명(22.0%), 2급이 9,801명(17.3%), 4급이 9,484명(16.8%), 5급이 9,296명(16.4%), 1급이 2,403명(4.2%), 무응답이 141명(0.2%)의 순이었으며, 장애원인은 교통사고, 산재, 각종 질환 등의 후천적 장애가 43,645명(77.2%), 선천적, 출생시 장애가 12,921명(22.8%)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단위 : 명, %)

항 목	빈도	백분율
계	56,566	100.0
성 별	남	46,711
	여	9,855
연 령	30세 미만	10,214
	30~39세 미만	14,880
	40~49세 미만	17,498
	50세 이상	13,943
	무응답	31
학 력	무 학	1,167
	초 졸	5,356
	중 졸	9,656
	고 졸	28,366
	대졸이상	4,558
	무응답	5,596
결혼여부	미 혼	16,486
	기 혼	40,041
	무응답	39
장애유형	지체·뇌병변	38,710
	시각·청각·언어	11,039
	정신지체·발달	4,861
	정신장애	802
	내부장애·기타	1,154
장애등급	1 급	2,403
	2 급	9,801
	3 급	12,468
	4 급	9,484
	5 급	9,296
	6 급	12,973
	무응답	141
장애원인	선천적, 출생시	12,921
	교통사고, 산재, 각종 질환 등	43,645

2. 조사대상자의 취업 직종별 장애유형 분포

조사대상자 56,566명의 취업 직종별 장애유형 빈도분포 결과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첫째, 단순노무직 종사자 21,867명의 장애유형은 지체·뇌병변장애가 12,403명(5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각·청각·언어장애가 4,315명(19.6%), 정신지체·발달장애가 4,153명(18.8%), 정신장애가 674명(3.1%)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치, 기계제작 및 조립직 종사자 19,313명의 장애유형으로는 지체·뇌병변장애가 14,458명(74.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각·청각·언어장애가 3,976명(20.5%), 정신지체·발달장애가 621명(3.2%), 내부장애·기타가 243명(1.3%), 정신장애가 127명(0.7%)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무직 종사자 10,113명의 장애유형으로는 지체·뇌병변장애가 8,027명(7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각·청각·언어장애가 1,634명(16.1%), 내부장애·기타가 372명(3.7%), 정신지체·발달장애가 110명(1.1%)이었으며, 정신장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문직 종사자 5,273명의 장애유형은 지체·뇌병변장애가 4,017명(7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각·청각·언어장애가 1,152명(21.9%), 정신지체·발달장애가 18명(0.4%), 내부장애·기타는 100명(1.6%)이었으며, 정신장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취업 직종별 장애유형 분포

(단위 : 명, %)

취업직종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발달	정신장애	내부장애, 기타
전 체	56,566 (100.0)	38,904 (68.4)	11,078 (19.5)	4,902 (8.6)	802 (1.4)	1,169 (2.0)
단순노무종사자	21,867 (100.0)	12,403 (56.4)	4,315 (19.6)	4,153 (18.8)	674 (3.1)	454 (2.1)
장치,기계제작 및 조립종사자	19,313 (100.0)	14,458 (74.3)	3,976 (20.5)	621 (3.2)	127 (0.7)	243 (1.3)
사무종사자	10,113 (100.0)	8,027 (79.2)	1,634 (16.1)	110 (1.1)	-	372 (3.7)
전 문 가	5,273 (100.0)	4,017 (76.2)	1,152 (21.9)	18 (0.4)	-	100 (1.6)

3. 조사대상자의 직업유지기간 분포

조사대상자 56,566명의 직업유지기간 빈도분포 결과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첫째, 단순노무직 근로장애인 21,867명의 직업유지기간은 1~3년 미만이 6,433명(29.4), 5~10년 미만이 4,664명(21.3%), 3~5년 미만이 4,469명(20.4%), 10년 이상이 3,211명(14.7), 1년 미만이 3,091명(14.1%)로 나타났다. 둘째, 장치, 기계제작 및 조립직 근로장애인

19,313명의 직업유지기간은 1~3년 미만이 5,499명(28.5%), 5~10년 미만이 4,466명(23.1%), 10년 이상이 3,959명(20.5%), 3~5년 미만이 3,060명(15.8%), 1년 미만이 2,330명(12.1%)로 나타났다. 셋째, 사무직 근로장애인 10,113명의 직업유지기간은 10년 이상이 3,232명(32.2%), 1~3년 미만이 2,624명(25.9%), 5~10년 미만이 1,839명(18.2%), 1년 미만이 1,225명(12.1%), 3~5년 미만이 1,172명(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문직 근로장애인 5,273명의 직업유지기간은 10년 이상이 1,968명(37.3%), 5~10년 미만은 1,025명(19.4%), 3~5년 미만은 929명(17.6%), 1~3년 미만은 928명(17.6%), 1년 미만은 423명(8.0%)로 나타났다. 직업유지기간에서 특이한 점은 사무종사자와 전문가의 직업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 32.2%, 37.3%를 각각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타직종 종사자에 비해서 안정적인 직업유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취업직종별 직업유지기간 분포 (단위 : 명, %)

취업직종	계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전 체	56,566 (100.0)	7,069 (12.5)	15,483 (27.4)	9,630 (17.0)	11,994 (21.2)	12,390 (21.9)
단순노무종사자	21,867 (100.0)	3,091 (14.1)	6,433 (29.4)	4,469 (20.4)	4,664 (21.3)	3,211 (14.7)
장치,기계제작 및 조립종사자	19,313 (100.0)	2,330 (12.1)	5,499 (28.5)	3,060 (15.8)	4,466 (23.1)	3,959 (20.5)
사무종사자	10,113 (100.0)	1,225 (12.1)	2,624 (25.9)	1,172 (11.6)	1,839 (18.2)	3,252 (32.2)
전 문 가	5,273 (100.0)	423 (8.0)	928 (17.6)	929 (17.6)	1,025 (19.4)	1,968 (37.3)

4. 직업유지기간 관련 요인간의 상관분석

취업직종별 장애인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장애관련 변수, 직업훈련관련 변수, 직업만족관련 변수와 직업유지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직업유지기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변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 성별, 연령, 결혼여부, 가구소득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직업유지기간이 길며,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력은 직업유지기간과 통계적으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서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성별	1.000																								
2. 연령	.137**	1.000																							
3. 학력	.106**	-.331**	1.000																						
4. 결혼	.068**	.703**	-.250**	1.000																					
5. 소득	.033**	.129**	.009	.282**	1.000																				
6. 시각·청각·언어	-.045**	.048**	-.075**	.028**	.083**	1.000																			
7. 정신지체·발달	-.046**	-.514**	.042**	-.526**	-.214**	-.238**	1.000																		
8. 정신장애	-.090**	-.073**	.088**	-.183**	-.079**	-.088**	-.086**	1.000																	
9. 내부장애·기타	.002	.011	.045**	.019**	-.066**	-.072**	-.070**	-.026**	1.000																
10. 장애등급	.082**	.427**	-.043**	.438**	.271**	-.020**	-.401**	-.135**	-.012	1.000															
11. 장애원인	-.143**	-.493**	-.004	-.442**	-.254**	.110**	.417**	.028**	-.002	-.395**	1.000														
12. 직업훈련기간	-.058**	-.043	-.071**	-.007	.070**	-.188**	.036	.087**	.047	-.021	-.080**	1.000													
13. 업무와의 일치도	-.019	-.154**	-.032	-.194**	.025	-.011	.291**	.086**	.019	-.094**	.219**	-.027	1.000												
14. 고용형태	.004	-.073**	.026**	-.067**	.033**	-.077**	.072**	.020**	.014	-.040**	.075**	.058**	.119**	1.000											
15. 업무배치	.019**	-.076**	.064**	-.074**	.033**	-.085**	.061**	.070**	-.021**	-.031**	.034**	.070**	.064**	.643**	1.000										
16. 장애인고용환경	-.041**	-.091**	.046**	-.104**	-.017	-.057**	.060**	.084**	.017	-.071**	.053**	.135**	.103**	.502**	.534**	1.000									
17. 건강서비스 제공	-.014**	-.099**	.055**	-.097**	-.002	-.045**	.078**	.101**	-.017	-.054**	.116**	.026	.246**	.505**	.522**	.615**	1.000								
18. 임금수준	-.003	-.080**	.074**	-.074**	.064**	-.010	.079**	.059**	-.004	-.036**	.111**	-.071**	.243**	.498**	.505**	.486**	.544**	1.000							
19. 상사·동료와 대인관계	.027**	.016	.036**	.020**	.066**	-.053**	.001	-.035**	-.005	.043**	.004	-.077**	.117**	.466**	.544**	.429**	.473**	.448**	1.000						
20. 승진	-.042**	-.042**	.062**	-.075**	-.078**	-.034**	.039**	.046**	.040**	-.056**	.066**	.065**	.024	.371**	.425**	.463**	.455**	.477**	.416**	1.000					
21. 근무시간	-.010	-.099**	.063**	-.087**	-.035**	-.043**	.084**	.015	-.018**	-.029**	.089**	.142**	.179**	.443**	.480**	.433**	.505**	.502**	.503**	.472**	1.000				
22. 출퇴근	-.002	-.083**	.047**	-.054**	-.036**	.010	.079**	.014	-.018**	-.065**	.125**	.002	.191**	.452**	.437**	.413**	.492**	.488**	.489**	.445**	.731**	1.000			
23. 장애인고용관리	-.068**	-.154**	.064**	-.136**	-.058**	-.096**	.131**	.038**	.020**	-.075**	.162**	.135**	.202**	.450**	.443**	.577**	.531**	.486**	.441**	.528**	.479**	.438**	1.000		
24. 직업유지기간	.141**	.169**	-.134**	.210**	.163**	-.003	-.159**	-.023**	-.039**	.136**	-.098**	.106**	-.218**	.096**	.029**	.020**	.070**	.037**	.032**	.020**	.003	.025**	.011	1.000	

* p<.05 ** p<.01 *** p<.001

장애관련 변수 중에서는 장애유형에서 정신지체·발달장애 근로자가 지체·뇌병변 장애 근로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직업유지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장애 및 내부장애·기타 장애 근로자 역시 지체·뇌병변장애 근로자에 비해 직업유지기간이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각·청각·언어장애 근로자는 지체·뇌병변장애 근로자에 비해 직업유지기간과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등급은 경증일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원인은 직업유지기간과 통계적으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장애원인이 교통사고, 산업재해, 각종 질환 등의 후천적인 장애근로자일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직업훈련관련 변수 중에서는 직업훈련기간이 길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훈련 분야의 현재 업무와의 일치도와 직업유지기간과 통계적으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서 업무와의 일치도가 낮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업유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선행연구결과와 다른 특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취업관련 직업만족 변수에서는 고용형태, 업무배치, 장애인고용환경, 건강서비스 제공, 임금수준, 상사·동료와 대인관계, 승진, 출퇴근에 만족할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무시간, 장애인고용관리와 직업유지기간과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취업 직종별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장애관련 변수, 직업훈련관련 변수, 직업만족관련 변수가 취업직종별 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표 6>은 전체 장애근로자를 대상으로, <표 7>, <표 8>, <표 9>, <표 10>은 취업직종별 장애근로자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장애관련 변수, 직업훈련관련 변수, 직업만족관련 변수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nter Method)을 실시한 결과이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간,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VIF(Variance Inflation Factor)와 Tolerance방식에 의해서 검토하였는데, 분석결과 이들 변수간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 이하로 나타나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이나(김호정, 1998; 김두섭, 2000; 성래경, 2000; 서완수, 2001), 본 분석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TOL 값이 3 이상이고, VIF 10을 넘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전체 장애근로자의 직업유지기간에 미치는 요인

취업직종별 장애 근로자의 직업유지기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전에 전체 장애 근로자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종합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결과 및 전체 장애근로자 분석 결과의 다중공선성 검증결과는 <표 6>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와 Tolerance를 참고하면 된다.

Model I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만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로서 설명력(R^2)은 15.0%로서 모형 값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성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연령층이 높을수록, 학력은 낮을수록,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II는 장애관련 변수만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로서 설명력(R^2)은 5.4%로서 모형 값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모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기준변수인 지체·뇌병변장애 근로자에 비해 시각·청각·언어장애 근로자, 정신지체·발달장애 근로자, 정신장애 근로자, 내부장애·기타장애 근로자들의 직업유지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등급의 경우 중증보다 경증일수록, 장애원인은 선천적인 장애보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각종 질환에 따른 후천적인 장애일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III는 직업훈련관련 변수만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로서 설명력(R^2)은 2.9%로서 모형 값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직업훈련기간이 길수록, 직업훈련 분야가 현재 업무와의 일치도가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IV는 취업관련 직업만족 변수만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로서 설명력(R^2)은 3.9%로서 모형 값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결과 고용형태, 건강서비스 제공, 임금수준, 승진, 근무시간에 만족할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업만족관련 변수 중에서 업무배치, 장애인고용환경, 출퇴근, 장애인고용관리의 변수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요인에 만족할수록 직업유지기간이 짧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유지기간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N=56,566)

구분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TOL	VIF
	β	t	β	t	β	t	β	t		
성별	.135	33.226***							.946	1.057
연령	.114	21.217***							.533	1.876
사회학적 특성									.792	1.262
결혼여부	.126	24.115***							.573	1.747
가구소득	.234	55.256***							.869	1.151
장애 관련 특성										
장시각·청각·언어			-.039	-9.131***					.910	1.099
정신지체·발달			-.084	-18.331***					.802	1.247
정신장애			-.036	-8.753***					.971	1.030
내부장애·기타			-.025	-6.127***					.984	1.016
장애등급			.140	30.864***					.821	1.219
장애원인			-.070	-15.240***					.801	1.249
직업 훈련										
직업훈련기간					.158	10.057***			.996	1.004
현재 업무와의 일치도					.038	2.395*			.996	1.004
취업 관련 만족										
고용형태							.149	19.870***	.465	2.152
업무배치							-.024	-2.995**	.411	2.434
장애인고용환경							-.065	-8.381***	.439	2.276
건강서비스 제공							.082	10.689***	.442	2.260
임금수준							.050	6.742***	.470	2.127
상사·동료와 대인관계							.010	1.417	.558	1.791
승진							.020	2.833**	.525	1.904
근무시간							.052	6.093***	.355	2.813
출퇴근							-.022	-2.664**	.387	2.583
장애인고용관리							-.081	-11.410***	.523	1.912
R ²	.150		.054		.029		.039			
Adj-R ²	.150		.054		.029		.039			
F	1,929.653***		534.419***		55.161***		149.175***			

* p<.05 ** p<.01 *** p<.001

2) 단순노무직 근로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에 미치는 요인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직업유지기간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단순노무직 근로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N=21,867)

구 분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β	t	β	t	β	t	β	t
성 별	.136	20.066***						
인구 연 령	-.006	-.620						
사회 학 력	-.106	-14.635***						
특성 결혼여부	.134	13.869***						
가구소득	.121	17.336***						
장애 관련 특성	시각·청각·언어		-.044	-6.072***				
	정신지체·발달		-.146	-17.721***				
	정신장애		-.031	-4.446***				
	내부장애·기타		-.044	-6.520***				
	장애등급		.072	9.354***				
장애원인			-.001	-.073				
직업 훈련	직업훈련기간				.101	4.322***		
	현재 업무와의 일치도				-.215	-9.215***		
취업 관련 직업 만족	고용형태						.148	12.750***
	업무배치						-.112	-9.039***
	장애인고용환경						-.023	-1.944
	건강서비스 제공						.083	6.971***
	임금수준						-.003	-.257
	상사·동료와 대인관계						.030	2.774**
	승진						.017	1.635
	근무시간						-.013	-1.010
	출퇴근						-.003	-.272
	장애인고용관리						-.060	-5.230***
R ²	.077		.035		.058		.020	
Ad-R ²	.077		.035		.057		.019	
F	353.183***		133.716***		52.790***		28.677***	

* p<.05 ** p<.01 *** p<.001

Model I 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만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로서 설명력(R²)은

7.7%로서 모형 값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학력이 낮을수록, 기혼이 미혼보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단,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II 는 장애관련 변수만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로서 설명력(R^2)은 3.5%로서 모형 값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표 6>의 전체 장애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기준변수인 지체·뇌병변장애 근로자에 비해 시각·청각·언어장애 근로자, 정신지체·발달장애 근로자, 정신장애 근로자, 내부장애·기타장애 근로자들의 직업유지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등급의 경우 중증보다 경증일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길며, 장애원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III는 직업훈련관련 변수만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로서 설명력(R^2)은 5.8%로서 모형 값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직업훈련기간이 길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업훈련의 현재 업무와의 일치도가 직업유지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표 6>의 전체 장애근로자의 결과와 같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업무와의 일치도가 낮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IV는 취업관련 직업만족 변수만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로서 설명력(R^2)은 2.0%로서 모형 값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결과 고용형태, 건강서비스 제공, 상사·동료와의 대인관계에 만족할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업만족관련 변수 중에서 업무배치, 장애인고용관리의 변수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요인에 만족할수록 직업유지기간이 짧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장치·기계제작·조립직 근로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에 미치는 요인

장치·기계제작·조립직 근로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결과는 <표 8>과 같다.

Model I 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만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로서 설명력(R^2)은 17.0%로서 모형 값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기혼자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서, <표 7>의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Model II 는 장애관련 변수만을 투입한 결과로서 설명력(R^2)은 9.2%로서 모형 값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정신지체·발달장애와 정신장애 근로자의 경우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기준변수인 지체·뇌병변장애 근로자에 비해 정신지체·발달장애 근로자, 정신장애 근로자들의 직업유지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등급의 경우 경증일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길며, 장애

원인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후천적인 장애인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장치·기계제작·조립직 근로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N=19,313)

구 분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β	t	β	t	β	t	β	t
성 별	.141	20.517***						
인구 연 령	.112	12.599***						
사회 학 력	-.114	-16.148***						
특성 결혼여부	.097	11.457***						
가구소득	.267	39.608***						
장애 관련 특성	시각·청각·언어		-.011	-1.512				
	정신지체·발달		-.024	-3.397***				
	유 정신장애		-.064	-9.214***				
	내부장애·기타		.010	1.415				
	장애등급		.246	32.001***				
장애원인		-.072	-9.551***					
직업 훈련	직업훈련기간				.199	7.540***		
	현재 업무와의 일치도				.201	7.599***		
취업 관련 직업 만족	고용형태						.055	3.933***
	업무배치						.010	.719
	장애인고용환경						-.111	-7.661***
	건강서비스 제공						.133	9.971***
	임금수준						.045	3.334**
	상사·동료와 대인관계						.004	.382
	승 진						-.004	-.359
	근무시간						.053	3.444**
	출퇴근						.026	1.782
	장애인고용관리						-.063	-4.926***
	R ²	.170		.092		.082		.032
	Ad-R ²	.170		.092		.081		.031
	F	772.807***		325.099***		58.746***		38.825***

* p<.05 ** p<.01 *** p<.001

Model III는 직업훈련관련 변수만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로서 설명력(R^2)은 8.2%로서 모형 값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결과적으로 직업훈련기간이 길수록, 직업훈련 내용이 현재 업무와 일치할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IV는 취업관련 직업만족 변수만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로서 설명력(R^2)은 3.2%로서 모형 값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결과 고용형태, 건강서비스 제공, 임금수준, 근무시간에 만족할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만족 관련하여 장애인고용환경, 장애인고용관리의 변수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요인에 만족할수록 직업유지기간이 짧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사무직 근로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에 미치는 요인

사무직 근로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결과는 <표 9>와 같다.

Model I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만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로서 설명력(R^2)은 30.6%로서 모형 값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사항은 단순노무직과 장치·기계제작·조립직 종사자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적,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Model II는 장애관련 변수만을 투입한 결과로서 설명력(R^2)은 4.9%로서 모형 값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시각·청각·언어, 정신장애, 내부장애·기타 장애 근로자의 경우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기준 변수인 지체·뇌병변장애 근로자들에 비해 직업유지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직종의 특성상 정신지체·발달장애 근로자는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등급의 경우 경증일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길며, 장애원인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각종 질환 등 후천적인 장애인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III는 직업훈련관련 변수만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로서 설명력(R^2)은 8.2%로서 모형 값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결과적으로 직업훈련 내용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무직종과 일치할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업훈련 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IV는 취업관련 직업만족 변수만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로서 설명력(R^2)은 10.2%로서 모형 값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결과 고용형태, 건강서비스 제공, 임금수준, 근무시간에 만족할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표 8>의 장치·기계제작·조립직 종사자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업무배치, 장애

인고용환경, 승진, 장애인고용관리의 변수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요인에 만족할수록 직업유지기간이 짧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 사무직 근로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N=10,113)

구 분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β	t	β	t	β	t	β	t
성 별	.172	19.160***						
인구 연 령	.333	29.768***						
사회 학 력	.034	3.704***						
특성 결혼여부	.106	9.819***						
가구소득	.229	25.862***						
장애 관련 특성	시각·청각·언어		-.130	-13.166***				
	정신지체·발달							
	정신장애		-.041	-4.106***				
	내부장애·기타		-.071	-7.178***				
	장애등급		.133	13.179***				
직업 훈련	직업훈련기간				.038	.879		
	현재 업무와의 일치도				.195	4.486***		
취업 관련 직업 만족	고용형태					.287	17.494***	
	업무배치					-.099	-5.721***	
	장애인고용환경					-.126	-7.786***	
	건강서비스 제공					.153	8.834***	
	임금수준					.105	6.087***	
	상사·동료와 대인관계					.006	.419	
	승진					-.033	-1.994*	
	근무시간					.044	2.178*	
출퇴근					-.035	-1.835		
장애인고용관리					-.109	-7.015***		
R ²	.306		.049		.044		.102	
Ad-R ²	.306		.049		.040		.100	
F	855.834***		104.799***		12.897***		78.376***	

* p<.05 ** p<.01 *** p<.001

5) 전문직 근로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에 미치는 요인

전문직 근로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전문직 근로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N=5,273)

구 분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β	t	β	t	β	t	β	t
성 별	-.029	-2.590*						
인구 연 령	.407	30.204***						
사회 학 력	.008	.692						
특성 결혼여부	.138	9.992***						
가구소득	.224	17.723***						
장애 관련 특성	장 시각·청각·언어		.085	6.413***				
	애 정신지체·발달		.019	1.443				
	유 정신장애							
	형 내부장애·기타		.032	2.455*				
장애 등급			.081	5.898**				
장애 원인			-.280	-20.714***				
직업 훈련	직업훈련기간				.352	6.990***		
	현재 업무와의 일치도				.211	4.194***		
취업 관련 직업 만족	고용형태						-.021	-.951
	업무배치						.244	10.013***
	장애인고용환경						.041	1.555
	건강서비스 제공						-.131	-4.662***
	임금수준						.178	7.474***
	상사·동료와 대인관계						-.265	-10.149***
	승 진						.018	.700
	근무시간						.320	11.105***
	출퇴근						-.140	-4.973***
	장애인고용관리						-.059	-2.592*
R ²	.383		.100		.207		.121	
Ad-R ²	.383		.099		.202		.119	
F	639.850***		116.812***		43.498***		47.170***	

* p<.05 ** p<.01 *** p<.001

Model I 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만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로서 설명력(R^2)은 38.3%로서 모형 값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사항은 <표 7> 단순노무직, <표 8> 장치·기계제작·조립직, <표 9> 사무직종 근로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직의 경우 여성이 오히려 남성에 비해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전문직의 경우 대체적으로 고학력이어서 통계적으로 집단간에 비교가 되지 못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Model II 는 장애관련 변수만을 투입한 결과로서 설명력(R^2)은 10.0%로서 모형 값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시각·청각·언어, 내부장애·기타 장애 근로자의 경우 지체·뇌병변장애 근로자들에 비해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직종과는 다르게 전문직의 업무수행 특성과 연관된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장애등급의 경우 경증일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길며, 장애인원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각종 질환 등 후천적인 장애인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 8>의 장치·기계제작·조립직, 사무직 종사자들과 같은 결과이다.

Model III 는 직업훈련관련 변수만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로서 설명력(R^2)은 20.7%로서 모형 값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결과적으로 직업훈련기간이 길수록, 직업훈련 내용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전문직종과 일치할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 8>의 장치·기계제작·조립직 종사자와 같은 결과이다.

Model IV 는 취업관련 직업만족 변수만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로서 설명력(R^2)은 12.1%로서 모형 값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결과 업무배치, 임금수준, 근무시간에 만족할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서비스 제공, 상사·동료와의 대인관계, 출퇴근, 장애인고용관리의 변수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요인에 만족할수록 직업유지기간이 짧은 것으로 해석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취업직종별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수, 장애관련 변수, 직업훈련관련 변수, 직업만족관련 변수로 구분하여 빈도와 백분율, Pearson 상관관계(correlation) 및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nter Method)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주요 논의점 및 함의점은 다음의 8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타 선행연구에서 시도하지 못한 전수조사 원본 자료(raw data)를 활용하여 56,566명을 대상으로 취업직종별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장애인의 직업유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염희영(2004)은 공단의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사업체의 지체장애 근로자 256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변용찬 외(2004)는 경기도 취업실태조사결과를 활용하여 3,1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김기태 외(1998)는 서울, 경인, 부산, 경남지역 여성청각, 지체, 시각, 정신지체장애인 80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형열(2007)은 전국에 취업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2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Laurel과 Holly(1993)는 성인 청각장애인 1,309명을 대상으로, 이달엽(2003)은 지체장애 근로자 374명을 대상으로 하는 등 직업유지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지역적, 장애유형과 특히, 대상자 수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신뢰도가 높고, 가장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자료 활용을 위해 공단에서 실시한 2005년 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의 원본 자료(raw data) 중에서 직업유지기간과 관련된 56,566명의 장애인 근로자 자료를 활용하였다.

둘째, 취업직종별 전영역에서 지체·뇌병변장애 유형이 타장애유형에 비해 압도적인 분포 4)를 보이고 있다. <표 3>에서와 같이 단순노무자의 경우 지체·뇌병변장애가 12,403명(56.4%), 장치, 기계제작 및 조립종사자의 경우 14,458명(74.3%), 사무종사자의 경우 8,027명(79.2%), 전문가의 경우 4,017명(7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사무직과 전문직의 경우 타직종에 비해 업무 자체의 성격이 인지적인 기능 및 행정적인 업무영역의 수행능력이 많이 필요하여 지체·뇌병변장애 유형의 분포가 많은 것은 부분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단순노무직과 장치·기계제작 및 조립종사자의 경우 타 유형의 장애인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업체내의 세밀한 직무조사 등을 통하여 타장애유형의 고용촉진을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결과 장애인 근로자의 근속률이 낮다는 일반적인 편견에 반증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4>에서와 같이 조사대상자인 취업직종별 직업유지기간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직의 경우 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7,875명(36.0%), 장치, 기계제작 및 조립직의 경우 8,425명(44.0%), 사무직의 경우 5,091명(51.0%), 전문직은 2,993명(57.0%)로 나타났다. 특히, 사무직의 경우 10년 이상이 3,252명(32.2%), 전문직의 경우 10년 이상이 1,968

4) 장애유형별 분포(2007.3.31.현재)를 살펴보면, 전체 등록장애인이 2,010,560명이며, 지체가 1,070,433(54.0%), 뇌병변이 200,060명(10.0%), 시각이 209,962명(11.0%), 청각이 189,349명(10.0%), 언어가 14,882명(1.0%), 정신지체가 137,098명(7.0%), 발달이 11,261명(1.0%), 정신장애가 77,697명(4.0%), 신장이 45,484명(3.0%), 심장이 14,017명(1.0%), 호흡기가 13,399명(1.0%), 간이 6,083명(1%), 안면이 1,936명(0%), 장루·요루가 10,723명(1.0%), 간질이 8,176명(1.0%)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장애유형별 등록비율이 지체장애인이 전체 대비 1,070명(54.0%)인 점을 감안할 때 지체장애인 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직종별 전영역에서 비율이 높을 수 있는 측면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명(37.3%)로서 직무수행시 기능이 필요한 안정된 직무일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길게 나타난 것은 직업재활 및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육 측면에서 직업선택시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다.

넷째, 취업직종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가구소득)의 경우 대체적으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한 논의점 및 합의점을 세밀히 살펴보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성별의 경우, 전문직 근로장애인은 여성일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에 비해 직업유지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선행연구결과(Mobley & Griffeth, 1979; Katz-Garris et al., 1983; 최희정, 1999; 변용찬 외, 2004; 이형열, 2007)와 일치하지 않는 특이한 발견이다. 이는 전문직이라는 수행해야 할 직무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② 학력의 경우, 사무직 근로장애인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길었고, 단순노무직과 장치, 기계제작 및 조립직 근로장애인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오히려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길다고 보고한 선행연구(Martin, 1979; 박주영, 2003)와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길다는 선행연구결과(변용찬·이정선, 2005)를 모두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육체적인 활동이 많은 단순노무직과 장치, 기계제작 및 조립직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인지적인 능력이 많이 필요한 사무직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직무 특성상의 차이라고 할 수 분석된다. ③ 결혼여부와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결혼여부의 경우, 전 취업직종에 있어서 기혼자일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길다는 많은 선행연구결과(김신영, 1966; 박주영, 2003; 변용찬 외, 2004; 한정용, 200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가구소득의 경우도 전 취업직종에 있어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길다는 선행연구결과(김기원·김승아, 1995)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전 취업직종의 장애인 근로자는 결혼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가구소득에 따른 경제적 안정이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기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다섯째, 장애유형이 취업직종별 장애인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10>에서와 같이 타 직종과는 달리 사무직에서는 지체·뇌병변장애 근로자에 비해 시각·청각·언어장애와 내부장애·기타장애 근로자가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체·뇌병변장애가 타 장애유형에 비해 직업유지기간이 길다는 선행연구결과(변용찬 외, 2004; 변용찬·이정선, 2005)와 일치하지 않는 특이한 발견이다. 결과적으로 취업직종에 따라서 장애유형은 직업유지기간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이번 연구결과 입증되었다.

여섯째, 장애등급과 장애원인을 살펴보면, 장애등급의 경우, 전 취업직종에 있어서 장애등급이 경증 급수일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길다는 선행연구결과(김기원·김승아, 199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장애원인의 경우, 4가지 취업직종 모두에서 후천적 장애일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길다는 선행연구결과(이상욱·박주영, 2002; 박주영, 2003)와

일치하였다.

일곱째, 단순노무직의 경우 직업훈련관련 변수 중에서 특히, 직업훈련이 현재 업무와의 일치도가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짧게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이은진, 1993; 이형열, 1996)의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노무직의 직무특성상 고도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직무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본인 능력에 적합한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사업체로의 이직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덟째, 직업만족관련 변수의 경우 취업직종별로 대체적으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한 논의점 및 함의점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된다. ①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와 건강서비스 제공의 경우,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취업직종에서 직업유지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고용의 안정성 및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②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전 취업직종에 있어서 임금 수준에 대해 만족할수록 직업유지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수많은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Cotton & Tuttle, 1986; Johnson, 1993; Larel & Holly, 1993; Pollock, 1993; 김승아, 1995; Thomas, 1999; Michael et al., 2000; 김현주, 2002; 변용찬·이정선, 2005; 강석구, 2006; 이형열, 2007). 그러나 단순노무직의 경우 임금 수준이 직업유지기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직무와 관련된 직종상의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가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③ 또한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전 취업직종에 있어서 근무시간은 직업유지기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김기원·김승아, 1995; 김승아, 1995; 이달엽 외, 2002).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에 집중적으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증장애인 즉,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특수학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④ 분석결과 가장 특이한 사항은 전 취업직종에 있어서 장애인고용관리에 만족할수록 직업유지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고용관리(직업생활상담원, 수화통역, 작업지도·보조원 등)에 만족할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길다는 선행연구결과(Warren, 1981; James et al., 1986; 김금란, 2002)와 일치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단순히 해석하지 못할 특이한 발견으로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어진다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의의로서 기존의 직업유지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연구가 용이한 지역적 및 취업직종의 협의성과 지체, 정신지체, 정신장애인 등 연구가 용이한 대상으로 한정하여 실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포괄성과 전국의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의 원본 자료(raw data)를 활용하여 취업직종별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기간 관련하여 최초로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단, 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모두 분석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2005년도 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2006)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를 모두 분석에 포함시킬 수 없었던 점은 제

한점으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서, 본 연구를 통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 관련 요인, 직업훈련관련 요인, 직업만족관련 요인이 취업직종별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유지기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는 모든 변수를 포함하여 취업직종별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장애유형별 직업유지기간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김금란(2002). 청각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한 욕구조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기원·김승아(1996). 장애인근로자와 정상인근로자의 이직요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9, 42-67.
- 김기태, 박병현, 강철희, 이성규, 이경희(1999). 여성장애인의 취업욕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7, 33-66.
- 김두섭(2000). **회귀분석**. 서울: 나남출판사.
- 김승아(1994). **장애인 직장적응과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김승아(1995). **근로장애인의 이직요인 분석과 대처방안**. 서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김현주(2002). 청각장애근로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호정(1998). **사회과학통계분석**. 서울: 삼영사.
- 박주영(2003).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유지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변용찬, 이은정, 이계철(2004). 경기도 취업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직업재활연구**. 14(1), 105-131.
- 변용찬, 이정선(2005). 취업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인고용**. 성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53-169.
- 손국진(2004). 정신지체근로자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
- 서완수(2001). **기초통계학**. 서울: 도서출판 아진.
- 성래경(2000). **회귀분석**. 서울: 자유아카데미.
- 심경순(2003). 정신장애인이 인식하는 직업유지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5, 7-31.
- 오수정(1999).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이금진(2000).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달엽(2003). 지체장애근로자의 직업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5, 131-153.
- 이봉원(2000).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태화 샘솟는 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상욱, 박주영(2002).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 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12(2), 43-67.
- 이은진(1993). 장애인 직업재활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채식(2005). 정신지체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취업알선서비스 경험자

- 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이형열(1996). 장애인직업재활이 장애인의 심리·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이형열(2007). 청각장애인의 직무만족,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 염희영(2004). 지체장애 근로자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장혜경(1996).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주소현(2000). 정신분열병 환자의 직업유지와 작업환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희수(1999). 정신분열병 환자의 직업재활 성과의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희정(1999). 여성장애인의 복지권 확보를 위한 연구: 기본적 생존권, 교육, 취업, 여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1). **2000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성남: 동공단.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6). **2005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성남: 동공단.
- 한국장애인재활협회(1999). **장애인복지실무자 해외연수보고서**. 서울: 동협회.
- Anthony, W. A., Liberman, R. P.(1986). The practice of psychiatric rehabilitation; historical, conceptual & research base. *Schizophrenia Bulletin*. 2(4). 542.
- Bell, M. D.(1996). Clinical benefit of paid work activity in schizophrenia. *Schizophrenia Bulletin*. 22(1), 51-62.
- Buell, G. J., Anthony, W. A.(197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recidivism and post-hospital employ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0.
- Cotton, J. L., Tuttle, J. M.(1986). Employee turnover: A meta-analysis and review with implications for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 55-70.
- Jacobs, H.(1988). *Vocational Training. Psychiatric Rehabilitation of Chronic Mental Patients*. Americans Psychiatric Press.
- James, A. H., Laurie, H. F., James, W. M., & John, P. D.(1986). "Differential reasons for job separation of previously employed persons with mental retardation". *Mental Retardation*. 24, 347-351.
- Johnson, V. A.(1993). Factors Impacting the Job Retention and Advancement of Workers Who are Deaf. *The Volta Review*. 95(4), 341-350.
- Katz-Garris, L., McCue, M., Garris, R. P., & Herring, J.(1983). Psychoiatric Rehabilitation: an outcome study.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27.
- Laurel, E. G., Holly, E.(1993). Work Place Success for Persons with Adult-Onset Hearing Impairment. *The Volta Review*. 95, 403-415.
- Michael, F., Liza, M., William, S. S., & Lolita, M. B.(2000). Multicomponent Intervention for Work-Related Upper Extremity Disorders. *Journal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10(1), 71-83.
- Mobley, W. H., Griffeth, R. W., Hand, H. H., & Meglino, B. M.(1979). Review and Conceptual Analysis of the Employee Turnover Process. *Psychological Bulletin*. 86, 493-522.
- Pollock, N. J.(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selected undergraduate status characteristics and factors pertaining to job status twenty-two months after graduation: A study of deaf university graduates*. Ed. D., The American University.
- Price, J. L., Mueller, C. W.(1986). *Absenteeism and turnover of hospital employees*. Greenwich, CT: JAI Press.
- Thomas, L.(1999). Job Satisfaction and intent to Continue Working among Individual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Psycho Rep*.
- Thompson, K. R., Terpening, W. D.(1983). Job-type variations and antecedents to intention to

- leave: A content approach to turnover. *Human Relations*. 36, 655-682.
- Rubin, S., Roessler R.(2001). *Foundation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cess*. Texas: Pro-ed.
- Strauss, J. S., Harding, C. M., Silverman, M. Eichler, A., & Liberman, M.(1998). *Work as treatment for psychiatric disorder*.
- Vandergoot, D.(1987). Review of placement research literature: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30.
- Warren, F. G.(1981). "Ratings of Employed and Unemployed Mentally Handicapped Males on Personality and Work Factors".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65 : 629.
- Weiner, H(1964).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rehabilitation.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2.

The analysis of job retention factor of employees with disability according to occupational categories of jobs

Lee, Hyung-Yeol

Full-time Lecturer, Dept. of Social Welfare, Kimpo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variables of population and society, related disabilities, related job training, related job satisfaction effect on duration of job retention. For this, the raw data of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 in 2005 was used and 56,566 data directly related this study was analysed. Frequency, percentage,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or this research questions. Whether it was multicollinearity or not was analysed by method of VIF(Varance Infaltion Factor) and Tolerance.

This results of study showed that variables of population and society, related disabilities, related job training, and related job satisfaction effect on duration of job retention effect on duration of job retention. Also these variables have an effect each others on the evidence. This results have a difference with the job category of assembly ·equipment ·mechanical production.

Especially, the difference results of this study on the other results was follows. First, the higher academic backgrounds showed the longer duration of job retention. Second, the long job retention duration revealed on the female disabilities worked in professional, the group of visual hearing language and the inner part the other disorde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many kinds of variables related population and society, related disabilities, related job training, related job satisfaction effect on the duration of job retention according to occupational categories of employee with disabilities. It suggested that the development of a policy and serv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specialized by occupational categories.

Key words: an occupational category of employment, people with disabilities, employee, the duration of job retention, vocational rehabilitation

논문 접수: 2007. 9. 20 심사 시작: 2007. 10. 2 게재 확정: 2007. 11. 5